

사무실과 쾌적환경 (1)

가톨릭 의대 교수 김 정 만

I. 우리나라의 사무실공간

최근에 건물의 대형화와 고층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대도시의 변형은 소위 문화의 시대, 쾌적한 환경의 시대라고 일컫는 선진국의 도시환경에 신속히 공감할 수 있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공공시설의 새로운 설계, 도로의 변형 등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다양화해지고 있어 이에 대처한 쾌적한 환경에 관심이 기울어져야만 할 추세이다. 그러나 고층화되고 다양화된 건물의 외형에 비해서 사무실 공간으로 눈을 돌려보면 질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시 말해서 환경수준은 매우 낙후되어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사무실 공간을 살펴보면 큰방에 책상과 의자가 협소하게 배치되어 있고 책상위에는 서류가 산더미같이 쌓여 있으며, 빈번히

울리는 전화벨소리, 담배연기로 뿌연게 더러워진 실내기후, 또한 전화를 걸거나 받으면서 옆에 동료와 대화하거나 또는 자기 서류를 정리하는 등 번잡한 사무실공간에는 자기도 타인도 존중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나라 통계에 의하면 1983년에 취업근로자의 46.9%가 3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어 점차 사무실공간 (office)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사무실공간은 1일중 1/3이상의 긴 시간을 지내는 큰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환경에 대해 고려가 등한시되고 있음이 문제이다. 사무실공간에 대한 근로자의 의식은 선진국에 비해 적은 편이다. 1980년에 모연구기관에서 사무실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다양한 불만중에서 실내환경이 어느 정도로 위치하고 있는가를 조사한 결과

표 1과 같다. 근로자 스스로가 환경에 대해서 무관심하지는 않지만 구체적인 행동으로는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실정이다.

<표 1> 근로자의 불만조사

	한	국	스	웨	덴
1위	급	료	직	종	
2	후	생	급	료	
3	근	로	상	사	
4	실	내	환	경	동
5	근	무	평	정	장
6	인	사	근	무	평
7	지	리	적	조	건
8	인	간	관	계	실
9	장	래	문	제	근
10	직	종	지	리	적

선진국에서는 취업시 근로시간, 급여라는 근로조건 보다는 자기가 일체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에서 일을 하는 것이 최대 관심사이고 취직을 결정하는 중요한 조건이 된다. 얼마나 일하기 쉬운 사무공간을 만드느냐가 선진국에서는 당연한 일로 생각되어 왔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정선

보건, 심리적인 면에서 사무실공간을 생각하는 점이 크게 결여되어 왔다.

공장의 자동화에서는 선진국을 빠른 속도로 따라가고, 쾌적하고 생산성이 높은 작업공간이 인간공학, 심리학, 노무관리, 작업연구, 산업위생, 건축, 미학등 다양한 관점에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사무실 공간으로 눈을 돌려보면 후진국인 실정이다. 따라서 요즘 도시에서는 사무자동화의 유행이 대두되기 시작했고, 사무실공간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것을 기회로 단순히 hardware의 사무자동화가 아닌 쾌적하고 일하기 쉬운 사무실공간이 무엇인가를 고려하여 공간창조에 배려해야 할 기술적 사항은 무엇인가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II. 사무실전망 (Office landscape)의 개념

선진국에서는 사무실공간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개선이 이루어지고 현재 사무실전망 (office landscape)이라는 수법이 주류가 되고 있다. 사무실전망의 기본개념은 제 2차 세계대전 후 서독경영위원회에 의해 개발되었다. 당시 서독은 산업

의 부흥이 현저하고 생산부문인 공장에서 다양한 개선이 이루어지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실제 자동화를 진행시켰다. 한편 관리부문인 사무실공간에 대해서도 개선이 검토되었다. 미국으로 시찰간 위원회 위원들은 미국의 bullpen office (체육관 같이 큰방의 사무실공간)을 착안하여 당시 주류이었던 개별방형식에서 큰방형식의 사무실공간으로 변경시켰다.

개별방형식의 사무실공간은 개인의 권리와 비밀이 잘 지켜지고, 일에 집중하기 쉬운 잇점이 있는 반면에 일의 흐름이 나쁘고 조직, 인사이동에 대한 융통성이 없고 건축, 설비면에서 경비가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공장의 layout에서 「생산라인」, 「물품의 흐름」을 중요시 하듯이 사무실공간에서도 「정보의 흐름」, 「사람의 흐름」을 중요시한다. 질이 낮은 정보의 흐름의 원흉인 과거의 개별방형식의 벽을 헐고, 미국의 bullpen office와 같은 큰방형식으로 사무실공간을 고쳤다. 그러나 일의 흐름만을 고려해서 큰방형식 (개방형 사무실공간)으로 변경한 것으로는 bullpen office와 다를 것이 없었다. 큰방형식의 사무실공간의 잇

점은 조직변경이 쉽고, 대화소통의 흐름이 좋으며, 적은 비용으로 양호한 공기조절장치의 설치와 배치가 가능하고, 융통성 (flexibility)이 풍부한 점 등을 들 수 있으나 단점으로는 정신적 불쾌감, 시야를 보호하기 어렵고, 소음상태가 심한 점 등을 들 수 있겠다. 개방형 사무실공간의 잇점을 살리면서 인간적인 공간을 만들어내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졌다. 우선 책상의 layout를 기계적이 아닌 일의 관련성에 따라서 유사 업무끼리 묶어서 배치하고, 정보, 작업의 흐름에 기초를 두고 동선 (動線) 계획을 세우고, 관엽식물식으로 배치하였다. 개방형사무실의 잇점을 살리면서 결점을 눈에 띄지 않게 다양한 기술을 도입시켜 최종적으로는 layout, 음향, 조명, 공조 (空調)의 개선에 따라 개방형사무공간의 결점을 보완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이에 따라 이상의 4가지 요소가 고려된 수준 높은 개방형사무실공간이 사무실전망 (office landscape)라 정의하게 되었으며 스웨덴 용어로 Layout, Ljud, Ljus, Luft 라는 것에서 4L의 요소라 명칭하게 되었다.